금주의 법구-〈대장엄론경〉
오로지 말을 조심하라.
함부로 남을 모략말며
남의 잘못을 전하지 말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4월 1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45호 2017년 4월 26일 수요일

봉축 D-7, 지극한 마음으로 연등 올립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전국사찰에서는 세상의 어둠과 고통을 걷어내며,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새 세상을 기원하는 연등달기가 한창이다. 화창한 봄날, 사찰에 걸리는 형형색색의 오색의 연등으로 파란 하늘은 알록달록하게 물들어 간다. 부처님오신날을 10여일 앞둔 4월 19일, 서울 조계사에서 한 종무원이 불자들의 소원을 담은 연등을 조심스럽게 달고 있다. 하나둘씩 걸리는 연등과 함께 불자들의 마음도 환희심으로 채워져 간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집단지성 구현해 위기를 기회로"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18일 출범… 사업 추진 본격화

본부장 도법 · 호성 · 금곡 스님
연구소 등 5개 산하조직 갖춰
미래세대委, 준비위원회 구성

올해 첫 사부대중공사도 실시
포괄적 주제 다뤄 결의는 無
2차 대중공사 6월 29일 예정

한국불교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백년대계를 모색하는 조계종 공식 기구가 출범했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공동본부장 도법 · 호성 · 금곡)는 4월 18일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한국불교 백년대계를 위한 2017년 제1차 사부대중 공사'를 봉행하고, 본부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백년대계본부는 조계종이 올해 신년기자회견서 밝힌 주요 종단과제 중 하나로 기존 자성과쇄신결사 추진본부를 계승 · 전환한 총무원장 직속기구다. 본부 산하에는 불교사회연구소(소장 일감) · 대중공사추진위원회(위원장 호성) ·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 · 종책개발위원회(위원장 금곡) · 미래세대위원회(준비위원장 심산) 등 5개 조직을 두고 있다. 신설조직인 종책개발위는 중앙종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졌으며, 미래세대위원회는 준비위원회를 통해 위원 섭외에 나설 계획이다.

출범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치사를 통해 "앞으로 우리 종단은 더욱 근본적이고 오래 묵은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바로 공동체 기본 구성요소인 스님과 신도, 사찰과 관련한 근본문제이며 종단 운영시스템에 대한 사항이다. 종단 각종 통계가 그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면서 "한 해 출가자가 156명으로 연간 출가자 총인원 200명 선이 무너졌다. 출가자 평균연령은 40대이고, 승려 중 50대 이상이 70%에 이른다. 출가인원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신도들 현황 역시 마찬가지"라고 한국불교가 직면한 현실을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엄중하고도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백년대계본부를 구성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며 "진지한 경청과 탁마를 통해 찾아가는 백년대계본부의 소중한 의미와 앞으로의 실천이 우리 종단과 사부대중, 그리고 우리사회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백년대계본부 공동본부장 호성 스님은 "현대인들이 명상과 수행, 힐링 등 종교적 욕구가 높은 반면 제도화된 기존의 종교로부터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높아진 종교욕구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위기는 기회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며 "사부대중이 주체가 되는 불교, 대화와 토론이 활발하게 펼쳐지는 불교, 집단지성이 역동하는 불교의 길을 가야 한다. 당장은 역량도 미약하고 대중의 신뢰도 부족하지만 한국불교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발걸음은 뚜벅뚜벅 나아가야 된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중앙종무기관장 스님을 비롯해 각 부실장, 중앙종회의원 등 중진스님과 재가포교신행단체장,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백년대계본부 출범식에 이어 사부대중공사 발원문을 낭독하고, 제1차 사부대중공사를 시작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 앞서 자승 스님은 백년대계본부 각 위원장 도법 · 호성 · 금곡(흥천사 정념) 스님을 공동본부장으로, 사무총장 일감 스님을 불교사회연구소장으로 임명했다.

오후에 진행된 사부대중공사는 현재 한국불교가 직면한 위기상황을 공감하는 수준으로 막을 내렸다. 위원들은 '한국불교 위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주제 아래 개개인의 견해를 짤막하게 교환했다.

백년대계본부는 오후에 2시간가량 모둠토론을 진행한 뒤 각 모둠별 결과를 발표했다. 주제가 광범위한 만큼 △한국불교의 변화 방향 △사찰의 역할 △제도개선 △사회참여 △열린 불교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하지만 한국불교 변화의 필요성은 공통적으로 드러났다.

1모둠은 재가자 역할 및 참종권 확대 · 출가부터 열반까지 생활불교 역량 강화를, 2모둠은 계층 맞춤형 불교 · 스님 전문성 강화 · 도심사찰 성공사례 분석을, 3 · 4모둠은 출가자의 엘리트화 · 출재가 역할분담 · 재산공개 및 인사투명화를, 5모둠은 삶의 현장과 함께하는 불교 · 전법역량 및 승려복지 강화를, 6모둠은 마음을 치유하는 불교 · 시대 맞는 수행방법론 개발 등을 제안했다. 다양하면서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토론 주제가 광범위해 집중도가 떨어지고, 토론시간 부족으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한 점은 지적사항으로 제기됐다. 이에 백년대계본부는 이날 제안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추후 대중공사 주제를 좁힐 것을 밝혔다. 2차 대중공사는 6월 29일에 열릴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세계 첫 신문 '조보' 문서 발견

지봉 스님, 19일 공개… 5일치 8장 분량

선조 10년(1577) 음력 11월 28일. 선조는 조정 신료들에게 "내가 우연히 조보(朝報)를 보건대 매우 우려할 일이다. 끝까지 추문해 엄히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꾸짖는다. 이에 조정은 조보 발행에 참여한 30여 명을 잡아 추문하고 형벌을 내렸다.

이는 〈조선왕조실록〉에 언급됐던 세계 최초의 신문 '조보'의 유일한 기록이다. 이 같은 기록을 통해 조선 중기에 이미 신문이 발행되고 있었음이 추정됐지만, 그간 실물이 나오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조보'의 실물로 추정되는 문서가 서지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스님의 노력 끝에 발견됐다.

영천역사문화박물관장 지봉 스님은 최근 고서적 경매사이트에서 입수한 '조보' 실물을 공개했다.

지봉 스님이 입수한 조보는 8장. 1577년 음력 11월 6일, 15일, 19일, 23일, 24일 총 5일치 분량이다. 내용도 다채롭다. 6일자에는 인성 왕후의 안부를 묻는 내용, 왕과 신하가 학문을 논하는 경연이 열리지 않다는 기록이 담겼다. 15일자에는 소 수백 마리가 역병으로 죽었다는 소식, 23일자에는 날씨와 별자리까지 기록돼 있다. 심지어는 조정 신하들의 인사기록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조보는 지금의 일간지처럼 매일 활자 조판으로 발행됐고, 사대부부터 글을 읽을 수 있는 지식인 계층에게 판매됐다. 사실상 민간 주도 일간 상업지였다는 것이다. 특히, 조정의 소식을 담기면서 사대부와 지식인 계층에게 정치에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백성에게도 나라 소식이 전해질 수 있었다.

입수된 '조보' 문서가 공인될 경우 한국은 세계 최초 신문을 발행한 국가로 인정받게 된다. 그동안은 독일에서 1660년에 발행된 '라이프치거 차이퉁(Leipziger Zeitung)'이 세계 최초 신문으로 공인돼 왔다. 조선시대 조보의 발행은 이보다 83년 빠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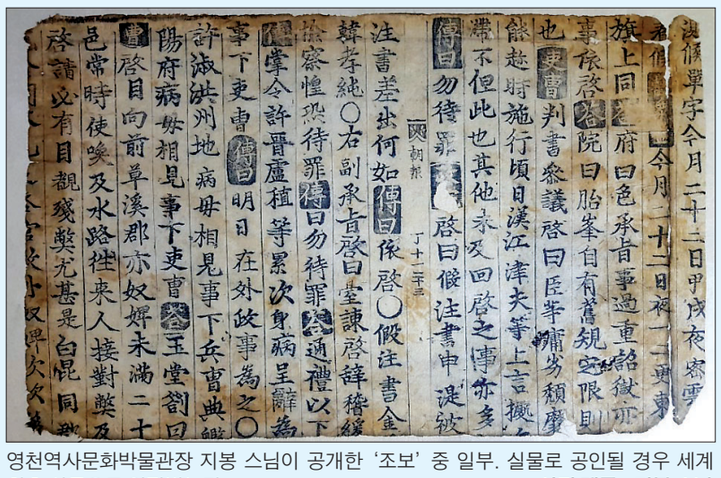
영천역사문화박물관장 지봉 스님은 "그간 조보는 실록 기록만 있을 뿐 실물이 확인되지 않아 공인받지 못했다"면서 "조보 문서가 공인될 경우 조선은 역사상 최초로 민간 상업 일간지를 발행했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보 첫 확인, 의미 높아"
獨서 나온 신문보다 앞선
1577년 발행, 일간지 표방
국정부터 날씨까지 담아내
선조 격분…3개월만에 폐간

하지만, 조보는 선조의 분노로 발행 3개월 만에 폐간됐다. 지봉 스님은 "왕권 기반이 약했던 선조는 조정의 소식이 가감 없이 백성과 외국에 전달되는 것을 두려워했을 것"이라며 "민간 조보의 발행은 당시 조정의 큰 사건이었다. 기자와 판매원이었을 30여 명의 사람들이 추문을 당하고 형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보를 입수한 사람들도 숨길 수 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역사에서 잊힐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영천역사문화박물관장 지봉 스님이 공개한 '조보' 중 일부. 실물로 공인될 경우 세계 최초 신문으로 인정받는다. **사진 제공= 지봉 스님**

선운사
삼사순례 안내

삼사 성지순례는 영험깊은 기도도량을 순례하며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벗어나 지극한 심신으로 업장소멸을 다짐하는 불교의 오래된 풍속입니다.

강학과 수선도량 선운사는 미륵지장기도성지 **도솔암**과 참회수행도량 **참당암**이 자리잡고 있어 성지순례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사찰경내에 **대형저수지(도솔제)**가 자리잡고 있어 방생법회와 삼사 성지순례의 명소입니다.

유서깊은 기도도량의 순례를 통해 신심을 다져 보시기 바랍니다.



1코스 : 선운사 ⇨ (5분) ⇨ 도솔제(방생)(5분) ⇨ 참당암(5분) ⇨ 도솔암

2코스 : 도솔암 ⇨ (5분) ⇨ 도솔제(방생)(5분) ⇨ 문수사(고창) ⇨ 내소사(부안)

오시는 길

• 서울출발 : 경부고속도로 → 천안 논산 고속도로 → 서해안 고속도로 → 선운산 I.C → 선운사(약 3시간 소요)
• 부산출발 : 남해고속도로 → 담양 고창 고속도로 → 서해안 고속도로 → 선운산 I.C → 선운사(약 3시간 소요)
• 대구출발 : 88올림픽고속도로 → 담양 고창 고속도로 → 서해안 고속도로 → 선운산 I.C → 선운사(약 3시간 소요)

※ 사전 연락주시면 사찰안내 및 방생 편의를 제공해 드립니다.
※ 대형버스 진입가능.


선운사 강학과 수선 도량


도솔암 도솔천 내원궁 해동 제일 미륵 · 지장보살 성지


청량산 문수사(문수보살 기도성지)


능가산 내소사(서해제일 관음기도도량)


참당암 참회수행도량


방생 최적지 도솔제 (경내 차량 5분거리에 위치)

■ 문의 : 선운사 종무소 063)561-1422 / 도솔암 063)564-2861 / 내소사 063)583-7281 / 문수사 063)562-0502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선운사 http://www.seonunsa.org/